

금추일언 만일 애증을 끊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이미 탐욕을 버
리고 도가 바르면 이는 온갖 괴로움을 떨친다.
(법구경·범지품 421절)

東大新聞

창간일: 1945년 10월 13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2770-2057)

제 1141 호

(주간)

1994. 11. 11 목요일 제 2538호
1955. 10. 13 제3호 창간호 (가)급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 (불기 2538년) 2월 23일 (수요일)

93학년도 학위수여식 열려 서울·경주 총 5천6백54명 졸업

93학년도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에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박사 47명, 석사 2백54명, 연구 및 관리자과정 3백16명, 학사 3천4백73명 등 총 4천9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수석 졸업자의 영예는 취득학점 1백48학점에 평점평균 4.34를 받은 사회학과 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용호군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 성적 우수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학과 및 평점)

△전체수석=이용호(경외, 4.34)
△전체차석=윤영선(교육, 4.31)
△불교대=조양순(선, 4.12)
△문과대=박정순(국민윤리, 4.25)
△이과대=김은주(통계, 4.24)
△법과대=이영호(법, 4.14)
△사과대=김정란(경영, 4.05)
△경상대=오유철(정보관리, 4.22)
△농과대=편은수(농, 4.13)
△공과대=서정판(산공, 4.14)
△사범대=강성우(지도, 4.28)
△예술대=정민우(미술, 4.07)
△아간강좌=손혜정(회계, 4.03)

또한 단과대 수석을 차지한 조양순양은 6명의 여학생에게는 동국여학사회(회장=안채란)가 총장시상과는 별도로 주는 상이 부여된다.

이번에 전체 수석을 차지한 이용호군은 총장상을, 전체차석을 한 윤영선군은 이사장상을, 안철현(불교)군은 총무위원장상을 수상한다.

한편 지난 93년 5월 에베레스트

등정후 하산도중 추락사한 안진섭(체교)군에게는 명예졸업장이 수여된다. 고 안진섭군은 대학단일팀으로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후 사고를 당했다. "고인의 넋과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후배들에게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는 학생처장의 발의로 교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이전과 같이 학위수여, 총장·이사장·동창회장 축사, 기념품 증정후 사중서원으로 써 폐식하게 된다.

한편 경주캠퍼스 9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지역개발대학원행정학 석사 4명과 수료 74명, 학사 1천4백86명 등 총 1천5백64명에게 각각 학위와 수료증이 수여된다.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 4.5점에 4.35점을 얻은 정은희(법)양이, 차석은 4.34점을 얻은 방형진(행정)군이 차지해 총장상, 이사장상을 받는다.

각 단과별 수석졸업자는 △인문대=홍난(한문, 4.17)
△자연대=신영선(화학, 4.20)
△법과대=노우석(행정, 4.06)
△상경대=김경자(관광경영, 4.12)
△한의과대=박주홍(한의학, 4.10)
△의과대=이재경(의학, 4.23)이다.

대학 종합평가 항목·일정 확정 총5백점 만점 1백개 세부항목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 평가 대상 대학으로 총 7개 대학이 결정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위원장=조완규·전 교육부장관)는 지난 16일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평가대상 대학과 일정, 평가 항목 등을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평가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대학 6개교(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와 사립대학 1개교(포항공대)는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를 거쳐 11·12월중에 현지방문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교수영역

학학과 우수 학과평가결과

93년도 학과평가 결과 본교 서울캠퍼스 회학과가 학부의 대학원 모두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김희집·고려대총장)는 93년도 학과평가대상학과인 회학과, 기계공학과에



◇93학년도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오는 25일 중강당에서 치뤄진다.

동인천 길병원 위탁운영 재단이사회 통해 결정

동인천 길병원을 본교가 위탁운영하게 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오복원)은 지난 11일 제1백24회 재단 이사회를 타워호텔에서 열고 동인천 길병원을 본교간병병원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길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의 종류를 수역장, 전자계산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관을 개정했다.

또한 의료원 기획실은 길병원측과 세부사항을 협의중에 있다.

동국학원에서 위탁운영하게 될 동인천 길병원은 현 의료법인 길병원(이사장=이길애)이 가지고 있는

5개 병원의 하나로 현재 약방 3백병상 규모이나 한방 3백병상을 신설, 한·양방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길병원측은 보건사회부에 한방진료 허가신청을 내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날 있었던 이사회에서 94학년도 신규임용교원21명에 대한 인준과 함께 학교에서 제정한 추가경정 예산 4백69억원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포함부속명원 7종규모의 신관건립, 분당 한방병원 기공식 등도 올해안에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보직·직원 인사이동

학교당국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보직인사개편 및 직원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편된 보직인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교육대학장=조영록(사학)
△산업기술대학원장=신효선(식품공학)
△사범대학원장=김주환(지리교육)
△비서실장=장용철(전 총무부처장) 이상 2월 7일자.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장=김병기(국제경제)
△불교문화대학장=김영길(불교학)
△삼경대학장=황운식(회계학)
△교무처장=박창평(국사학)
△학생처장서리=이정민(미술학)
△교장생활관장=김영동(국어국문학)
△동국한방인턴 병원장 겸 한방병원장=이원철(한의학) 이상 2월 7일자.
△장각원장=이행구(불교학)
△의국어교육원장=신승윤(영어영문학) 이상 2월 15일자.

한편 인사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공보부장=김용철 △교무부처장=손상길 △총무부처장=이범수 △교육대학원 교학부장=박종환 △정보산업대학원 교학부장=신일식 △출판부장=백무성 △교육방송국 방송국장 서리=이시우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장=문기곤 △학생처 취업과장=황우열 △관리처 편제과장=오복음 △역경원 편집부장=최철환 △역경원 업무부장 서리=임규빈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사업부장=임영순 이상 2월 17일자.
(경주캠퍼스)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서리=황영수 △의료원 사무처장=김중

욱 이상 2월 7일자

△포항병원 사무국장 서리=윤범태 △기획홍보과장=차준환 △교무처 교무과장=이종석 △교무처 학적과장=이강현 △학생처 학생과장=김응기 △사무처 경리과장=서병수 △사무처 판매과장=정찬현 △도서관사서과장=남준 △도서관 열람과장=오종호 △의료원과전 기획감사과장 서리=김철석 △의료원과전 총무과장 서리=안준옥 △의료원 경주한방병원 서무과장=손양호 이상 2월 17일자.

신규 교수 21명 총원

94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초빙 심사 결과 총 8개학과에 21명을 총원하기로 확정되었다.

학과 심사후 초빙연구회심의, 총장면담, 인사위원회심의, 재단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신규교수명단을 학과별로 살펴보면 의학과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올해 학과평가를 받은 화학공학과로 3명이며 그외 서울캠퍼스에서는 독어독문과,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등이 각각 1명, 경주캠퍼스가 생화학, 관광경영학과에 각각 1명씩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기계공학과, 미술학과 등은 학과심사결과 추천대상이 없어 2학기 초 채용이 이뤄졌으며 독어독문학과는 경우 학생들이 교수채용과정에 학생참여보장을 요구하며 교수채용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원내직원

△전원철(법정대 야간반2) (이상 1월 15일자)

보리수

졸업과 무학위

불교의 수행과정은 여러가지 단계를 걸쳐 완성된다. 초기불교에서는 사쌍팔배(四雙八輩)라 하여 4단계 8가지 과정을 설정해 수행의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초기불교에서 제시한 수행의 네단계는 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아나함(阿那含)·아라한(阿羅漢)의 사과(四果)다. 수다원(srota-apanna)은 예류(預流)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진리를 발견해 성스러운 수행자의 무리에 합류한 것을 뜻한다. 사다함(sakradagamin)은 일래(一來)라고 번역하며 수행의 경지가 깊어져 한번만 재생(再生)하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경지다. 아나함(anagamin)은 불환(不還)이라는 뜻으로 다시는 더러움에 물드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지리다. 그리고 마지막인 아라한(arhat)은 응공(應供) 또는 무학(無學)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수행이 완성되어 존경받을 만하며 더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뜻한다. 부처님의 경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이름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초기불교의 네단계 괴위(果位)를 우리의 학제와 비교하면 어떻게 볼까. 물론 종교의 세계의 학문의 세계는 다른 것이지만 수다원은 학사, 사다함은 석사, 아나함은 박사에 비견할 만하다. 그러면 마지막 괴위인 아라한은 무엇에 비견할까. 학제상으로는 없지만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좌(碩座)교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더이상 배울 것이 없어도 할 일 더 많은 것이 석좌교수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경우, 그 일어난 증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35세의 나이에 무학위(無學位)에 올랐지만 그 뒤 45년의 세월을 증생제도를 위해 헌신했다.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 각급 학교는 학생들에게 졸업장과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소정의 기간동안 형식의 공을 쌓은 사람들로서는 자랑스럽고 영광된 자리다. 그런데 졸업식장의 뒷소식은 별무 개운치 않다.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해방감에서 슬을 마시고 패싸움을 하거나 심치어는 학교 유리창을 깨다. 대학졸업식장도 끝났건이다. 한쪽에서는 총장님이 마지막 훈시를 하는데 정작 들어야 할 졸업은 자리를 비운채 사진찍기에 존경받을 만하며 더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뜻한다. 부처님의 경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이름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洪思誠

알림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신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제학생
- ③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⑤원서접수: 서울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7일(목) 오후4시까지
- ⑥시험일차: 서울 3월17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7일(목) 오후5시
-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침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기획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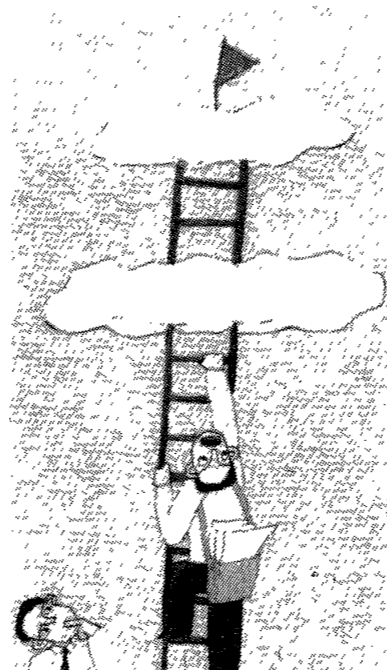
지면혁신 안내

이제 시작이라 다짐합니다

동대신문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겠습니다.

변화의 조류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라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것 만으로도 퇴보의 길을 걷고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 다짐합니다.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그 길을 달려갑니다.



동대신문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1. 독자여러분들의 시력보호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글자체를 기존보다 키웠습니다.
2. 각면의 외각선과 1.7면의 단간선을 없앴습니다.
3. 각면의 성격을 면의 윗부분에 표기 했습니다.
4. 고정칼럼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불교적 진리를 되새기자

치사

연하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기록적업시경쟁과 우수 한 신입생 확보는 동국발전의 밑거름 이 될 것입니다. 또 제3캠퍼스 부지확 보와 수도권 병원건립 등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랑스러운 동국의 후광을 지녔다는 자부와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서 새로운 일 터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학 교와 달리 지식적 실력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좌절이, 또 때로는 병혹한 현실이 여러분들을 힘 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연마한 여러분들 의 의지는 충분히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국제화'의 물결속 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울타리 안에 안주할 수만은 없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국인들도 미래 지향적이고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화라고 해서 우리들의 개성을 무시해도 된다 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 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대학교 에서 익힌 불교적 진리와 한국적 철학 은 이제 그 한국적 긍지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동국대학교의 교수들은 성실성있게 여러분들의 지적 발전을 가르쳐 왔습니다. 은사들의 노고가 없 었던들 결코 오늘의 이 영광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그 뒷바 라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은 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스치는 인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 와준 여러 인연들에 대해 감사하고 보 답할 줄 아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펼 쳐지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과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로써 힘 상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이만 졸업의 치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오 녹 원 합장

더 큰 배움의 시작으로

오늘 영광의 졸업생들을 축복해 주 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 녹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 전 임총장님, 동창회 간부님, 그리고 내의 귀빈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민족의 사화 동국대학교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각고 의 노력끝에 영광을 얻게된 졸업생 여 러분에게 진동국가학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온 갖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여러분에게도 축하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동국의 교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것을 생각하여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맞이하는 이 사회 는 결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탄 한 것도 아니며 행복한 이상향도 아닙 니다. 냉혹하면서도 극심한 경쟁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도전의 현상이 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의 현실은 국제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 일년을 지나면서 보 다 선진의 데에 서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개혁과 개방의 의지아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해야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문제를 위시하여 UR타결 이후의 국 제관계등 아직도 많은 난관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을 사 회에 보내는 본인으로서의 축하와 함 께 건국한 뜻까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 다.

첫째,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체득한 지혜와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누구보다 앞장 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성인으로서 참다운 불교정 신을 실현하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명리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따라 이웃과 사회 에 공헌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로써 배움을 마감하는 것 이 아니라 오늘부터 더 큰 배움을 시 작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로써 학사, 석사, 박사 등 하나의 학과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깊 고도 먼 배움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발전하는 지성인은 끊임없는 자기성 활과 연마를 계속할때 더욱 빛을 낼 수 있으니, 졸업후에도 학문과 인격을 갈고 닦아 훌륭한 평생교육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은 비록 오늘로써 동국 의 교문을 나서지만 동국의 자랑스런 동문으로서 영원한 동국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이고 동국대학교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영광된 졸업을 거 듭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 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며, 식사에 가름합니다.

총장 민 병 천 합장

매 세 비 평

최근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한 서적들이 급격히 출간되어 베스트 셀러를 기록, 일반인들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분 단 반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올바 른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이러 한 활발한 노력들은 바람직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맞춰 KBS TV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해방정국의 '정치암살 의 희생자들'을 기록, 지난 6일은 제1부 고하 승진, 13일은 제2부 용암 여운형, 20일은 제3부 설산 장덕수편을 방영했다.

우선 정치암살의 희생자들을 조 명해 봄으로써 해방정국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재평가 하려는 제 작의도에 이 조치가 얼마나 부합하 려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 암살범 수 밖에 없었는가하는 그 당시의 구조적 문제나 갈등관계 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채 암살 배후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그나 마 그에 대한 시원스런 해답도 주 지 못했다.

제2부 용암 여운형편에서 여운형 은 극단적인 좌우의 갈등속에서 좌 우통합을 정치적 신념으로 삼았던 인물로서 민족통일이 절박한 지금, 그의 사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 다. 그러나 여운형의 죽음으로 중 간노선의 설자리가 거의 상실되었 다고 보았을 때 제2부에서는 여운 형을 주축으로 하는 중도파의 입지 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명이 부실했 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가령 모스 크바강화회의 올바른 사실제시없이 극역시 찬락과 반락에 매몰되어 인

KTV 다큐멘터리극장 '정치암살의 희생자들'

물나누기식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설산 장덕수편은 우선 인 물선정에서 볼때 그가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나라 는 의문을 갖게한다.

장덕수는 한민당내부에서는 상당 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으 나 그의 친일애에 관해선 '오점'을 남 겼다는 한마디로 표현, 많은 친일 행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전 체적으로 긍정적 인물로 평가되었 다. 또한 현존하는 증언인터뷰에서 회시면 (당시 대한학생총연맹의장), 박정덕 (당시 대한혁명단장) 등 올바 른 자기반성없는 일방적 가해자의 목소리만을 담고 있으며 그의 증언 역시 오도된 이데올로기가 자기신 념화된 자신의 위치에서만 대변하 고 있을 따름이다.

이 프로에서 진행자는 "반약 장 덕수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해방이 후 역사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보편적이 고 의식없는 골뎀음이다.

그동안 다큐멘터리극장은 이제까 지 다루지 못한 소재를 방영했다는 점에서 사실 진일보한 면이 있었던 만큼 처음에 많은 기대를 하게 했 으나 지금껏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 실의 정리밖에 방영하지 못했다.

매체의 정점을 살리지 못한 채 새로운 사실 발견의 부족이나 정확 한 고증없는 프로, 명확하고 객관 적인 역사적 분석없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에 얽매어 단순한 흥미거리 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소영 기자)

조대 시 못 생긴 계단 이야기

또, 한 집이 이사를 한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신촌살림때부터 참았던 관공안을 떠나 강남 저기, 8학구으로 무리해서 이사간다는 미명어네 엄마는 오늘따라 예쁘고 웃음을 흘린다. 가갓집 돌목 뽕뽕진 계단 위를 이끌어 가우들이 그 해본 웃음에 맞춰 행진하는 동안 발이 유난히 작은,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인 미영이는 계단 한 모퉁이에 제 신발 자국을 내고 있었다.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돌목인 사람들이 그 신발자국을 보고 저를 기억해 주길 바라듯이 길게 길게, 그렇게 미영어네는 우리 돌목안에서 떠나 갔다. 그리고...

또, 한 집이 이사를 왔다.

계단위에 한두차례 이삿짐이 쏟아진 뒤, 이번엔 발만 큰 새내 녀석이 미영어네 했던 계단 한모퉁이를 다시 운동화발로 밟고 있었다. 낯선 돌목안 어색한 눈들이 사라질 때까지 너석은 분노처럼 미영어의 자국을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 그 새내 녀석 바로 옆에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돌목 뽕뽕진 계단이 떨어져서 처럼 헛살 아래 아무말도 없이 그저 예뻐취취 거 거 웃을 뿐이었다. 그저 지금까지도 모 잊으로도 자신을 떠나고 남을 무수한 발걸음이 결국엔 희망속에 하나로 접쳐지는 날을 끈기있게 기다릴 뿐이었다.

김수진 (사범대 국교과)

동/문/칼/림

'계 길을 친다'는 게의 옆결음을 읽는 발이다. '행보(橫步)'하면 게 걸음을 연상하는 것이 통범이 지만 게 종에는 앞으로 똑바로 걷는 종류도 많다고 한다. 발개 따위가 그것들이다.

게는 옆으로 걷든 앞으로 걷든 한눈을 팔지 않는다. 비록 어리석 고 눈치가 둔하지만 먹이를 향해 무지하게 달려드는 모습은 차라 리 아름다워 보인다.

6.25동란때 월북한 화가 김홍준 은 근원수원에 수록된 '계'라는 글 에서 윤우양의 시구를 인용, 게를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르는 무 장공자(無障公子)로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비대어 게 를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 르는 미물로 정의를 내렸다. 한 번 씹어먹이 불리한 내용이다.

졸업 때가 된 모양이다. 잠시 머 들렀던 자리를 떠나고 다시 그 빈 자리를 메우는 철이 돌아왔다. 졸업은 선택과 가벼운 긴장, 무연 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통과로례 다.

필자는 81년 2월25일에 졸업했 다. 80년5월 광주로 그 처절했던 항쟁과 참혹한 학살이 휘몰아쳤 던 이듬해였다.

내가 아는 몇몇 동료들은 가막 소로 달려갔고 그들의 자리는 끝 내 비어 있었다. 졸업한다는 것은 별로 자랑스레 내세를 일도 아니 었다. 동료들은 아무런 기약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나도 무언가에

새출발하는 후배들에게

뜻기듯이 교정을 벗어났다.

그로부터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지금 언론노동자 로 밥을 먹고 있다. 운동세계를 밟 줄로 졸문 상대하다보니 외길 인생들을 자주 만난다.

승부세계는 명암이 뚜렷하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라진다. 이겨야한다는 것은 그들의 절대 명제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하다'는 논리 속에 그들은 산다.

승부에 이긴 자들의 대부분은 한눈 팔지 않고 한우물을 판 사람 들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연습생 으로 들어가 프로야구 훈련장에 오른 장중훈이나 80년대 씨름달 인인 이만기같은 선수는 대표적 인 외길 인생이다.

그들은 때론 좌절하고 절망감

에 힘써왔던 적도 있었지만

게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 해 정진했기에 오늘의 이룩을 얻 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괴짜 바둑인 후지사와 히데유키는 66세때인 92년 일본 바둑시장 최고령으로 '왕좌(王座)' 타이틀을 따냈다. 두차례의 압수술을 이겨낸 그는 타이틀을 때진직후 이렇게 말했다.

"체력이 닿는 한 나는 다룬다. 이틀에 도전하겠다"

새로운 삶의 도전에 나서는 후 배들이여, 자신의 목표를 향해 용 망정진하기를, 올바르게 갈고 닦 지 않는 그대들의 앞길에 부처님 의 가호가 있기를.

홍운표 (일간스포츠 체육기자·철학과 81졸)

목 먹 골

- 축하합니다
- 졸업과 함께 새로 시작될 선 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에 행운이 함 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7대 사대대 학생회
-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 다. 졸업하셔서도 자주 들려 주시 기 바랍니다. - KCC STAFF 일동
- 사회학과 졸업하시는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회학과 일동
- 경이적인 경동고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경동고등학교 동문
- 회계과 선배님들 졸업을 축하 드려요. - 93회계 이쁜 백설7공주와 53명 난장이들
- 소영언니의 졸업과 영미언니 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미·소·선 추진위원회 회장
- 연구실 선배님 졸업을 축하합 니다. 기림이형 빼고(배봉) - 무역학 연구실
- 대원외고 선배님들의 졸업을

- 축하합니다. - 6기 이승호
- 화공과 '94년 졸업하는 선배님 들 무사히 졸업하심을 축하드립니 다. 졸업후에도 후배를 잊지 마세 요. -어느후배
- 서세팔의 농생과 90학번 졸업 생 여러분들의 출소를 축하드립니다. - 두만강 서준개이의 김급자 일동
- 졸업하시는 仁昌선배님들의 앞길에 장창하길... - 38기 일동
- 고려고 엄마들의 졸업을 축하 드립니다. 카니발에 나와요 꼭! 꼭! - 동상들이
- 마산항우회 선배님들의 졸업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마산항우회 후배일동
- 심우회 사천선배님들의 졸업 을 축하드립니다. - 본사가 되는 조원석
- 대우, 장희, 승진이 선배, 은수, 상희언니의 졸업을 정말 축하드려 요. - Tme반 애기들이

- 산업공학과 선배님들의 졸업 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산공 학우일동
- 고전기타반 14기 졸업축하한 다. 돈달이 날이 맛있는 거 사조라. - 혁
- 진이(인숙), 경인, 혜경선배님 들의 사회진출을 정말로 축하드려 요! - 탈 후배들
- "그리고...그림"·베개번적인 선배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연일 선배의 장가와 해형 선 배의 시집도 축하합니다.
- 활동부 경영학과 ROTC 32기 5분의 졸업과 입관을 축하합니다. - ROTC 명예위원장
- 현여울의 '87,88 멋진 오빠들, '90이쁜니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 현여울
- 유스호텔 상현, 운수선배 졸업 Very 축하합니다. - 14기
- 역사교육과선배님들 졸업을 진 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새해에도 하 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 제26대 역사교육과 학생회

- 국어교육과 선배님들(90,87,소 수 88)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 제26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 지리교육과 선배님들! 졸업 무지무지 축하드려요! - 후배일동
- D.R.C 90졸업을 자축합니다. - 14기 학우
- ADRUSH재하, 윤경, 선재, 선 영, 기범, 윤서, 병섭, 형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농생과 새로들어오는 '94학번 새내기 여러분! 대학생활을 치열한 고민과 배가지의 아름다운 말보다 한가지 마스한 실천을 통해서 재밌 고 보람있게 보내세요. - 25일 졸업하는 '90선배가
- 우석이형, 권준이형, 진형이형, 철우형, 경애형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신문사 자주 불러주세요. - 동대신문사 후배일동
- 그리고...
- 26대 총학생회, 열심히 일해서 학우들에게 사랑받는 동약을 만들 기 바랍니다. - 애국의 벗 제25대 총 집
- 화공과 소모임 술불 친구들,

- 올해에 줄더 힘내서 술불의 색깔을 찾을 수 있길... - 한때 술불이었던 선배
- 가모지르며 사회와 학원의 모순을 깨기 위해 학자투는 돌문 참고교육을 정취함으로써, 사회진보실현 운동 들을 전개함으로써 언제나 참된 지 성으로 살고자 노력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다 사회진출 후에도 진보적 삶 을 영위하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 니다. - 학원 개혁 민중정치의 길잡이 제8 대 인문대 학생회
- 형! 꽃샘 추위의 시린 바람을 몰아내 고 따뜻한 불기운이 온방골을 감쌀 무렵, 허름한 군복차림에 아무렇게 나 기른 머리의 형을 처음 만난 바 로 그날이었지요? 언제나 열심히 투쟁하며 진지하게 학문을 논하고 성의껏 생활하던 형의 모습은 온방 골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큰 뜻을 펼칠 더 넓은 세 계를 찾아가는 형의 앞날을 축복하 마... - 제6대 상명대 학생회
-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가는곳마다 좋은 세상 되소서. 불기 2838년 2월. - 화합과 도약 제1대 불교문화대학생 회
- 정들었던 온방골을 뒤로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졸업생들께 2 천 인문인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초반을 그동안의 실력으로 진취적인 기

- 삼과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사 회에서도 항상 선봉에 서시길 바랍 니다. - 제7대 자연과학대 학생회
- 최희 동국 자연대 학생들은 선배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항상 기원하 겠습니다. - 제7대 민족지성 법정대 학생회
- 선배님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 미한다고 누군가 말했다고 같습니 다. 자신의 삶과 조국의 미래를 위 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때 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온방골을 잊지 마시고 살아 갈 때 많은 날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 넉넉한 삶으로 새날을 다짐하는 제7대 민족지성 법정대 학생회
- 이부 법학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하며 예비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학회장 이상희
- 일문과 90학번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끝내는 한길 에 하나가 되라" 많이 보고 싶었지. 열심히 살라. - 일문 4년 이한숙
- 제1대 불교문화대 신입생 예 비대학을 축하드립니다. - D.현, J.원
- 정보산업 94학번 입학 축하 하고 저는 28일! 국방부로 편입합 니다. 화이팅!! - 92 주디보살

온 방 골

이제 더 큰 배움을 시작하 시는 선배님들, 불기운을 예고하는 3 월의 시작은 성큼성큼 달려오고 온 방골 구석구석에서 기다렸다는듯이 반기운이 흘러 나옵니다.

선배님들의 다양한 활동이 후배 들에게 울금계 전달되고 시향작으 를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킴이들 지켜나가는 제11대 총학 생회
-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가는곳마다 좋은 세상 되소서. 불기 2838년 2월. - 화합과 도약 제1대 불교문화대학생 회
- 정들었던 온방골을 뒤로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졸업생들께 2 천 인문인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초반을 그동안의 실력으로 진취적인 기

갑오농민전쟁 이후의 사회변화

현실 이기고 다양한 농민항쟁 전개 민족문제 내세운 의병전쟁으로 계승



한국 근현대사의 출발을 봉건체제의 타파와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파악할 때, 1894년은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임과 동시에 그 출발점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사회는 반봉건자의 입장에 선 근대사회의 실현과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편입에 따른 외압의 문제, 즉 반침략적 민족문제의 해결을 역사적 과제로 부여받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체제와 지주제적 경제체제의 결합을 그 기본구조로 하는 조선 중세사회는 후기로 가면서 삼정의 조세문제와 지주전호제에 대한 갈등을 노정하였다. 이는 대항 이후 더욱 심화되어, 봉건적 위기와 함께 상부의 근대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국가재정의 위기가 초래되자 그 재정부담이 농민들의 땀으로 이전되었고, 개항 이후 미국수출을 계기로 지주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층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상품화폐경제를 이용한 중간층의 수탈도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층의 봉기를 재촉하였고, 19세기 이래 근현대사의 수많은 농민항쟁은 바로 그 결과였다. 갑오농민전쟁은 근현대사의 농민전쟁을 총괄한 반봉건운동으로서 조세문제로부터 토지문제에 이르는 봉건모순의 총체적인 극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개항 이후의 봉건모순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모순과 중첩되어 있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은 먼저 유통부문에 침투해 들어와 종래의 유통구조를 개량장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내륙지방의 유통을 위해 조선인으로 조직된 매관적 성격의 한부유통조직을 갖추었다. 따라서 특권상인의 봉건적 성격과 그 매관성은 농민들의 비판과 공격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곡물의 유통은 농민층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였다. 이 시기 곡물의 대외수출로 인한 국내 곡물수급 구조의 교란과 재정확보를 위한 봉건정부의 악화발로 곡물가격을 각종 물가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빚고 있었다.

이처럼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은 봉건적 수탈과 결합되면서 사회모순을 심화하는 한편 빈농층을 비롯한 농촌과 도시의 일노동층과 소상공인층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민중세력은 지대와 조세의 이중적 수탈과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노출되어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는 민중세력이 당해 반봉건 근대화와 반제 자주화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가장 문명적 주체세력으로 등장하는 주체적 조건을 이루는 것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바로 빈농층을 중심으로 한 일노동층, 빈민층, 영세 수공업자, 그리고 일부 부농층 등 봉건적 민족적 모순을 감지하고 있던 민중의 에너지가 한데 모여 폭발한 반봉건 반제의 일대 혁명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의 변혁을 지향하던 갑오농민전쟁이 제국주의 세력과 봉건정부에 의해 좌절되자 조선의 사회경제적 모순은 한층 심화되어 갔다. 조세금납화와 제국주의 세력의 자본주의적 상품침투로 상품화폐경제가 농촌사회에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봉건적 모순은 오히려 확대되어 갔고, 정부 왕실의 개혁사업 추진에 따른 봉건적 수탈의 가중과 백중화, 남발로 말미암은 불가생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갑오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한 대한제국 정부는 강력한 전제왕권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련의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광무개혁으로 불리는 이 사업들은 왕권강화의 물질적 기반인 왕실재정의 확충과 지주제의 정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농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을 통해 마련하였다. 여기에 친세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의 대규모 횡령과 부정이 가중됨에 따라 농민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 갔다.

그러나 이시기에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가속화였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자 이를 배경으로 조선시장에 깊숙히 침투해 들어온 일본상인, 자본가들은 조선의 무역구조를 일본으로 곡물을 수출하고 일본에서 면제품을 수입하는 미면교환체제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조선 농업과 농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곡물의 상품화와 수출에 유리했던 지주층은 토지집적과 지대인상, 고리대 등으로 지주경영을 강화해 간 반면,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농업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일본제 면제품 수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토착 면포생산업과 재래면포시장에 큰 타격을 입혀 조선 면포생산자의 소부르주아적 발전을 억압하고, 농민들의 면포 지급자족경제를 해체시켜 갔다.

한편 일본과 더불어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도 왕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각종 이권을 둘러싼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근대적인 경제체제의 수립에 필수적이었던 교통, 통신, 값싼 원료의 획득을 보장하는 광업, 어업, 임업 등의 부문에 대한 이권이었다. 이에 따라 부부와 광산, 철도부설공사장 등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접 맞부딪치는 부문이 확대되어 민족적인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듯 사회적 모순이 가중되는 현실 조건 하에서 갑오농민전쟁 이후 운동의 구심점을 상실한 농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갔다.

아직까지 농촌에 남아 있던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소유와 소농경영의 안정화를 지향하면서, 토지와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민란형태의 농민항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빈농층, 농업일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동학당, 영학당과 농촌에서 유리된 유민들을 주축으로 한 활민당도 그 구심점과 지향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갑오농민전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봉건 반제의 요구를 뚜렷이 하면서 이시기 농민 운동을 이끌고 갔다.

특히 이시기에는 농촌사회에서 유리되어 부두나 광산, 철도공사장의 노동자가 되거나 유민 혹은 화적으로 존재하는 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농민운동을 중심축으로 했던 변혁운동도 농민, 일노동자층, 유민 등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하는 민중운동적 성격을 가진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전환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갑오농민전쟁은 그 실패 후에도 봉건모순과 민족모순이 가중되던 시대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제 반봉건 민중운동으로, 그리고 민족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의병전쟁이라는 민족해방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다고 하겠다.

차 순 해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연구원)

◇동학농민혁명과 그속의 문학

파랑새 노래
개념이 노래

동학혁명실상 예술적 승화

박경리 '토지' 등 작품에서 독자적 수용 문학사적 자리매김 유보 아쉬워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사상, 주제, 성격을 집약하여 이렇게 불러야 한다-은 올해로 일백년이 된다. 필자는 지난 달 사흘 동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한 장의 흑백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그 사진 속의 진봉준, 그는 서울로 잡혀가면서 '날카로운 눈매'로 우리에게 역사의 신을 말하는 듯했다. 민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역사의 신을 지켰다. 그들은 역사의 신을 통하여 복두장군을 비롯하여 그와 뜻을 같이 한 당대인을 땀땀하게 민족사이다 기념비처럼 다시 세웠다.

이 혁명의 사상적 바탕은 동학인데, 그 진수를 노래한 것이 '용담유사란 가사(歌辭)다. '용담유사'의 핵심은 권귀(權貴)로 표시되는 당대 사회의 지도층을 부정하고 빈천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의 삶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주가 순교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당대의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협력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가사에는 역사에 대한 소명(昭明)의식, 개벽(開闢)의식, 동구일체(同歸一體)라는 평등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경건과 같은 구실을 한 것이다. '용담유사'에는 들어 있지 않은 최재우의 '검결'은 실제로 혁명의 과정에서 군기로 불려졌다. '검결'의 혁명적 성격은 동학군에게 신명과 자신감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의 성립과정이나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에 대한 구전-이야기는 역사와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말하고 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서의 최재우는 민중이 출현을 기대하지 않았던 진언이며 초인일 따름이고, 동학 교리와는 무관하게, 이야기로서 읽히기 위해 수 있는 논리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다. 또 전쟁을 통하여 활약한 진봉준, 순화중, 김계남 등은 마치 삼국지의 결의형제처럼 활약하게 자신의 역할이 나뉘어져 협력하면서 농민군을 선도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컨대 이야기 속에서 진봉준이 전장에서 총알을 맞아도 죽지도 않고 그 총알이 튀어나왔다고 하듯이 초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그의 운명 시에는 "배 만나서는 천지도 내편이더니 / 운 다하니 영웅도 별수 없다"처럼 신명을 받은 영웅으로서 농민군의 대장으로 드러났으나 좌절된 모습을 보인다.

당시 사발통문에 붙어있는 "노래 냐여 난리가 났어" "에이 잘 잘 되었지, 그냥 이래로 지내셔야 백성이 한사람이 남아 있었네"라는 기록으로 보아, 민중은 이야기와 노래를 통하여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 독립의 수단으로 삼았다. 농민군의 선봉대가 불타는 '시집가는' 앞서 말한 동학가사 '검결'의 가사를 바꿔 부른 것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는 필자. 배경은 파랑새노래가 새겨진 시비.

이다. "칼노래 한국조를 시호시호 불러대니 /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원을 휘돌리고 /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혔네"라고 하듯이 이 '시집가는' 진군가로 선풍적인 혁명의 노래인 것이다. 이러한 선풍적인 노래는 동학농민혁명의 추이에 따라 이른바 참모로서 상징적인 임시의 노래로 전승된다.

"가보세 가보세/올미적 올미적/병신이면 못간다"라는 '가보세'의 군가풍은 "놀미겡겡이 패전했네"의 '봉준이노래'나 "개남이 개남이 진개남이/수많은 군사를 군기로 불려왔다. '검결'의 혁명적 성격은 동학군에게 신명과 자신감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파랑새 노래'는 각역에 따라 문명의 뜻이 겹쳐 있으나 진군가와 진군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야 제야 파랑새야/너 어이 나왔나/술넉넉넉 푸듯푸듯기로/불행인가 나왔나/나를 기쁘게 할까/너는 건너 저 침승이/복록이 날 속이었네"라는 사실은 참모로 바뀐 것이다. '파랑새 노래'는 각역에 따라 문명의 뜻이 겹쳐 있으나 진군가와 진군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야 제야 파랑새야/너 어이 나왔나/술넉넉넉 푸듯푸듯기로/불행인가 나왔나/나를 기쁘게 할까/너는 건너 저 침승이/복록이 날 속이었네"라는 사실은 참모로 바뀐 것이다. '파랑새 노래'는 각역에 따라 문명의 뜻이 겹쳐 있으나 진군가와 진군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동학의 전과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에 대한 문학적 반영은 이처럼 포효를 가사나 구비문화에도 보이지만 최초로 작가에 의한 가치 있는 예술적 형상화는 배태원의 '갑오농민전쟁'과 조운(曹運)의 '고부 두성산' 이후가 아닐까 한다. 더욱이 '가치있는'수식을 강조한다면, 신동엽의 장편서사시 '금강' 등에서 비롯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있는 의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문학사에서는 문학적 전경화(前景化)로서 민중-민권 혁명의 되찾아 보기에 있다.

이 전쟁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변용을 보여준 것은 서기원의 '혁명', 송기호의 '농무장군',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장효훈의 '진봉준', 양성우의 '민선보', 정희성의 '활동현에서 끝나루까지', 송수권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박경리의 '토지' 등

이다.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작가의 역사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수용이 개성적으로 나타나 독자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의 형상화는 대체로 진봉준이거나 진봉준의 분신과 같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내세워 민중-민권주체사관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소설에는 전통적인 문화와 서양문화가 갈등관계에 놓이는 전환기에서 민중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하는 논리가 우세하고, 시에는 전쟁을 배경으로 민중적 화구를 통해 민족이 주체성을 감지하고 민족의 영광을 고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다. 소설이든 시든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한 것이므로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에 대응하고 수용하는 방식은 역사 속의 대리자로서 인간적 존엄성을 확보해가는 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작가들은 이 혁명이 비록 당대로서는 좌절된 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혁명 이후 우리 역사에서 자유, 평등, 민주, 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민중의 동적 에너지들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공감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파수꾼으로서 작가들은 이 혁명의 역사적 증언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이 혁명의 정신이 거듭 문학적으로 변용되리라 믿는다. 이 정신은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혁명 등으로 계승되면서, 문학사에서 작품으로 새롭게 수용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예술적 진실과 역사의 선이 끊어지지 서로 만나 거둔 태어날 민중의 거사다. 우리는 거사 일백년이 지난 지금 이방 민중의 울분을 문학이란 통로로 절실하게 듣는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자리매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가가 그러하듯이 아직도 유보된 상태다.

이창식 (시법대 국교과 강사)

일반재입학원서접수

'94학년도 제1학기 일반재입학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일반재입학원서접수기간: '94. 2. 23(수) - 2. 28(금)
2. 일반재입학대상자: 학사내규 제53조에 의거 휴학기간 만료 및 미등록 제적자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3. 일반재입학 제외자
 - 가. 학칙 제6조에 의하여 재학연한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 나. 재학기간중 성적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4. 접수장소: 학적과
5. 구비서류
 - 가. 일반재입학원서 1부.
 - 나. 주민등록초본 1부.

교무처장

신입생 특별시험 안내

○ '94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함.

1. 시험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 점
공통필수	21101	국어강독 및 작문 I	2
공통필수	22103	영어 I	2
영역필수	41121	일반수학 I	2

2. 응시자격: '94학년도 신입생('94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3. 응시과목: 3과목 중 2과목까지 선정
4. 시험일시: '94.3.5(토) 09:00~11:50
5. 전 형 료: 과목당 30,000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94.2.28(월)~3.3(목)
- 나. 장 소: 교무과

교무처장

일반휴학원서접수

'94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접수기간: '94. 3. 2(수) - 3. 4(금)
2. 접수장소: 학적과
3. 대 상 자: '94. 2월말 현재 재학중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4.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연서요)
5. 휴학기간 만료후 미복학자는 제적됨

교무처장

알 림

도서관 특별열람증을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1994. 2. 23(수)~25(금) (3일간)
2. 발 급 일: 1994. 3. 2(수)
3. 장 소: 2층 열람실
4. 신청자격 및 서류
 - 가. 이번학기 시간강사 - 도서 대출 가능. 신청서 1, 강사경력증명서 1, 사진 1.
 - 나.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자 - 도서 대출 가능. 신청서 1, 수료증명서 1, 사진 1, 예치금 5만원.
 - 다. 졸업, 휴학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출입만 가능. 신청서 1, 졸업 또는 휴학증명서 1, 사진 1.
 - 라. 복학예정자 - 출입만 가능. 신청서 1, 복학예정증명서 1, 사진 1.
5. 유효기간: 1994. 3. 1 - 1994. 8. 31
6. 신청기간이후 매주 금요일 추가 발급함.

중앙도서관장

박사학위

◇차차석 (철학박사) = 법화경의 본질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실천이념을 중심으로 ▲59년생 ▲본교 불교학과

◇이일재 (철학박사) = 한산의 시계 연구 - 선문화적 입장에서 ▲51년생 ▲본교 불교학과

◇박문기 (철학박사) = 임제의현의 선사상 연구 ▲57년생 ▲본교선학과 ▲93년~현재 본교 선학과 강사

◇사토 시게키 (철학박사) = 원효에 있어서 화정의 논리-금강삼매 경론을 중심으로 ▲39년생 ▲동경대 경제학과

◇송하진 (문학박사) =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55년생 ▲전남대 국문과 ▲89~현재 전남대 조교수

◇장영길 (문학박사) = 15세기 국어모음 체계연구-모음추이를 중심으로 ▲50년생 ▲본교 국문과 ▲92~현재 본교 강사

◇박인웅 (문학박사) = A study of Interactive Processing in Listening Comprehension ▲40년생 ▲고려대 영문과 ▲84~현재 인하대, 외국어교육원 부교수

◇장시기 (문학박사) = Wordsworth 시에 나타난 중시화와 탈중시화의 언어분석 ▲61년생 ▲본교 영문과 ▲91~93년 서경대 영문과 강사

◇박영철 (문학박사) =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론 연구 ▲51년생 ▲본교 사학과 ▲88~현재 본교 사학과 강사

◇김기열 (문학박사) = 조선전국의 명분론 연구 ▲40년생 ▲고려대 철학과 ▲93~현재 국제대 한국사 강사

◇이영 (문학박사) = 중국공산당의 5년계획운동-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50년생 ▲성균관대 사학과

◇김재우 (문학박사) = 童庵 장지연의 민족의식 연구 ▲39년생 ▲서울대 사학과 ▲성암학원 재단 이사

◇박우현 (철학박사) =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관한 연구-명제와 진리함수를 중심으로 ▲58년생 ▲본교 철학과 ▲89~92 한성대 강사

◇정두용 (교육학박사) = 한국교육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추이분석 ▲40년생 ▲서울대 교육학과

◇고진호 (교육학박사) = 교육경험의 질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57년생 ▲본교 교육학과 ▲92~93 본교 불교대학원 강사

◇유인화 (법학박사)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9년생

◇남재우 (행정학박사) = 廢棄物管理의 경제적 유인정책에 관한 연구 ▲54년생 ▲본교 정치학과 ▲93~현재 환경저 시설계획과 과장

◇양문승 (법학박사) =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5년생 ▲고려대 법학과 ▲88년 본교 경찰 행정학과

강사

◇이광수 (경제학박사) = 한국의 구매력평가 성립여부에 관한 실증 연구-대선진6개국에 관한 단위근 및 공적분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고찰 ▲42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79~93 대전실업 사무 이사

◇안춘엽 (경제학박사) = 증권업의 규모 및 範圍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61년생 ▲본교 경제학과 ▲91~93 한국증권거래소 대리

◇김중관 (경영학박사) = 유기증권과 한국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분석 ▲57년생 ▲명지대 아랍어과 ▲92~현재 전북산업대 시간강사

◇이기태 (경영학박사) = 해상적하 보험계약의 위험의 초기와 중기에 관한 연구 ▲41년생 ▲연세대 경제학과 ▲88~89 안국화재 영업부장

◇김순규 (이학박사) = Ga-As / AlGaAs 조적자의 계면층 연구 ▲58년생 ▲본교 물리학과 ▲91~현재 본교 강사

◇송대경 (이학박사) =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Biodegradable Polyesters: Poly(L, 4-butenediol succinate), Poly(L, 4-butenediol dilactate succinate) and Poly(L, 4-butenediol dilactate-2-acetoxy succinate) ▲58년생 ▲본교 화학과 ▲88~89 본교 강사

◇이강철 (이학박사) = A study on Modified EM Algorithm for Estimating Regression Model with missing Values ▲52년생 ▲본교 통계학과 ▲84~현재 목원대 응용통계학과 부교수

◇이동규 (농학박사) = 鑛石분말의 특성과 施用효과에 관한 연구 ▲47년생 ▲본교 농학과 ▲90~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대우

◇서기호 (농학박사) = 벼종종별 雜草耐性 차이와 재조건에 따른 종자 休眠性의 변화에 관한 연구 ▲42년생 ▲서울대 농과대 ▲88~90 농림수산부 공무원 교육원

◇김사익 (농학박사) = 제지 Sludge-Cement Board의 제조적합성에 관한 연구 ▲60년생 ▲원광대 임학과 ▲92~현재 한국목재 공학회 강사

◇김성일 (이학박사) = 인산근부형 원공에 의한 뿌리색염병 방제를 위한 길항물질에 관한 연구 ▲58년생 ▲본교 농생과 ▲92~현재 환경오염 지표생물개발기법 연구원

◇최수경 (이학박사) = Fragile X 症候群이 있는 한국인 가족의 細胞 및 분자유전학적 연구 ▲57년생 ▲서울보건의전대 임상병리과 ▲90~현재 서울보건의전대 전임강사

◇김덕현 (공학박사) = 대수적 整數 환에 의한 고속후리에 변환 ▲58년생 ▲본교 전자공학과 ▲85~현재 광주대 전자공학과 부교수

◇최우승 (공학박사) = 차량 진화 지연과 제어를 위한 2중지연시간회로의 연구 ▲55년생 ▲본교 전자공학과 ▲88~현재 경원전문대 사주자동화 부교수

◇손동실 (공학박사) = 선형 직류전동기의 최적설계 및 제어 ▲52년

1993학년도 전 기 박사·석사학위취득자 명단

 ◇차차석	 ◇이일재	 ◇박문기	 ◇사토 시게키	 ◇송하진	 ◇장영길
 ◇박인웅	 ◇장시기	 ◇박영철	 ◇김기열	 ◇이영	 ◇김생기
 ◇박우현	 ◇정두용	 ◇고진호	 ◇유인화	 ◇남재우	 ◇양문승
 ◇이광수	 ◇안춘엽	 ◇김중관	 ◇이기태	 ◇김순규	 ◇송대경
 ◇이강철	 ◇이동규	 ◇서기호	 ◇김사익	 ◇김성일	 ◇최수경
 ◇김덕현	 ◇최우승	 ◇손동실	 ◇하영선	 ◇김용	 ◇노정선
 ◇이광열	 ◇채정숙	 ◇이윤희	 ◇이희자	 ◇송순	 ◇김인숙
 ◇문혜숙	 ◇송현애	 ◇박인규	 ◇엄현실	 ◇박재현	(이상 47명)

석사학위

〈대학원〉

▲류승주 = 원효의 선악공과 중도론에 대한 연구-대해도경중요를 중심으로 ▲이승철 = 선도의 정도사상 연구 ▲권영길 = 초기불교의 사회복지사상과 그 유예에 관한 연구 ▲정종기 = 원효의 주체로서 이차사상에 관한 연구 ▲서재영 = 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연구 ▲김영재 = 한국초기사의 사자상승관계 연구 ▲최홍순 = 조인천대의 교리논쟁 연구 ▲임승락 = 대비(Mahakaruna)에 관한 연구-연화계(Kamarsila)의 수습차레론(Bhavanakrama)을 중심으로 ▲김미숙 = 자이나 체계에서 실재의 이론 ▲이영민 = 인도사상의 해탈론과 기독교사상의 자유론-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해 ▲김미숙 = 초기불교 무아설의 교의 연구 ▲이상성 = 심정기의 비교 연구-이탈관과 정제관론을 중심으로 ▲최재준 = '죽음의 한 연구' - 박상용 소설의 담론 구조 ▲허혜정 = 1950년대 '후반기' 풍자의 시화 시론 연구-반 이디투스, 욕망의 시화-풀이 연구-('나), ('은), ('만), ('까지)'를 중심으로 ▲윤용경 = 시간 표현 형식 명사 연구 ▲백낙천 = 보조자가 결합한 접속어 연구 ▲이정일 = Ezra Pound의 시어

연구 ▲김진표 = T.S.Eliot의 시에 나타난 'Still Point'에 관한 연구 ▲최은희 = 한-일어 동작성사의 의미론적 격차 분석 ▲김지현 = 현대문학에 나타난 '간접 효과'의 유형에 관한 연구 ▲권해숙 = 일본어의 연동과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 ▲문해숙 = 추월사태의 시연구-'고양이'를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김병근 = 사노육촌과 사노국의 지배권력-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힘에 기반을 둔 지배권력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이상성 = 1930년대 황일화생운동에 대한 일고찰-독서와 운동 중심 연구 ▲민태현 = 신라와 위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김승호 = 조선전기 고공 대한 일고찰 ▲김유식 = 한국 고대 치미 조각의 고찰 ▲배영은 = 고려시대 화엄경사경 변상도의 연구 ▲곽동해 = 신라법종의 융유에 관한 연구-한국법종의 기원문제를 중심으로 ▲최성환 = 조선왕조 후반기 사원장식 변화 연구-인물화를 중심으로 ▲이후덕 = 팽파의 순자의 친인관계론 비교 연구 ▲김민은 = 도덕적 책임 가능성에 있어서 인간개념의 문제 ▲정희선 = 언론인 취임준비에 대한 연구-한국 언론인을 중심으로 ▲최영환 = 약보를 통한 창곡의 새로운 방안 모색 ▲김동훈 = 8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범소주의 연구 ▲김정용 = 타자와 공간의 변증법-필름노르의 인식론과 양식미학 연구 ▲이승우 = 소비에트 조기 영화 정책과 산업연구 ▲권형진 = 페리니의 8총작품분석-주제적 미연구 ▲윤태희 = 헐리웃 B급 영화 연구-영화사적 의미와 영화

미학적 가능성에 대하여-인영준 =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연구-현대 공상과학 영화를 중심으로 ▲김용선 = 한국가면극대사의 발음과 음성표현연구-송파산대놀이를 중심으로 ▲오은실 = 한국영화에 나타난 회귀성 연구-사회상의 변형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최지영 = 역할전기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김재희 = 화합합계에 관한 연구-주주 및 사회채권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조종익 = 보통무래와 관련된 연구-악관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영선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연구 ▲김광용 =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제6공화국을 중심으로 ▲박성미 = 소연방에서 중앙과 공화국간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우혁재 = 유원공동체의 정치통합에 관한 연구- 단일 유원공동체와 유원공동체를 중심으로 ▲황진배 = 국제관계분석에 있어서 신원실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이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준길 =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기조변화와 한 중수교 ▲이종우 =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분석-통합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최재준 = 약보를 통한 창곡의 새로운 방안 모색 ▲김동훈 = 8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범소주의 연구 ▲김정용 = 타자와 공간의 변증법-필름노르의 인식론과 양식미학 연구 ▲이승우 = 소비에트 조기 영화 정책과 산업연구 ▲권형진 = 페리니의 8총작품분석-주제적 미연구 ▲윤태희 = 헐리웃 B급 영화 연구-영화사적 의미와 영화

심으로 ▲홍성민 = 통화량과 이자율 및 추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한국의 경우, 그리고 한국-미국과의 비교분석 ▲조영집 = 산업관련연계 추가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황보진 = 물가결정요인으로서의 통화량과 이자율에 관한 연구-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분석 ▲김도희 = 반덤핑관세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대한민국 4개국의 경우 ▲이기현 = 실버 시장의 세분화 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단체체와 자녀동거세대와 의-와-주를 중심으로 ▲김병호 = 지프형 승용차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강희 = 활동기준 통계정보에 관한 고찰 ▲김우석 = 교육훈련 구성요소 조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범재 = 기업합병의 동기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마홍락 = 추가수 산물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기관투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정성훈 =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제에 관한 고찰 ▲이유선 =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수현 = 현금흐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만익 = 도서지방의 여천에 대한 연구-재주도의 반도를 사례로 ▲정성훈 = 공업생산조직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구로공단을 사례로 ▲이승아 = On Topos Structure in the Category of Monoid Actions on Sets ▲김경선 = On Ideal Classes in the Category of Modules

MBE법에 의한 CdTe(111)/GaAs(100) 이종구조의 성장 ▲김미영 = 수직상에 질소 염기를 포함한 Tetraphenylporphyrinruthenium(II) Carbonyl 착 화합물과 그 유도체 합성 및 분광학적 특성 ▲송성영 = Synthesis of 5(4H)-Oxazolone and Its Derivatives ▲김은미 = 다섯종 항균활성물질 검색 및 부분정제에 관한 연구 ▲이주희 = Synthesis of 2-Oxazolone and Its Derivatives ▲이재용 = Synthesis of 5, 6-Dihydro-4H-1,3-Oxazine and Its Derivatives ▲김선용 = 핵융모형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P-P 확률도표에 관한 연구 ▲정영미 = 로지스틱회귀분석에 관한 연구 ▲김기문 = 은염된 다중이상치와 영향력관찰치의 새로운 식별 방법 ▲이재훈 = 배양액 농도가 토마토의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 ▲박영기 = 폭배 처리된 목질계 Biomass의 효소기수 분해-리그린의 함량과 결정화도가 효소기수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손승현 = 목재부후균에 대한 Trichoderma spp.의 길항작용에 관하여-Antagonistic effects of Trichoderma spp. Against Wood - Rot Fungi- ▲최광호 = Partial Purification of Soluble Acetylcholinesterase from Quail Brain Using Affinity Chromatography ▲김재영 = 3-Acetylpyridine이 메추리 여러 조직내 대사물질, 효소 활성 및 핵산 함량에 미치는 영향 ▲송기훈 = EFFECTS OF CHRONIC ETHANOL ADMINISTRATION ON ENZYMES AND NUCLEIC ACIDS LEVELS IN VARIOUS TIS-

SUES OF ADULT MALE RATS ▲백년영 = 가난한 해인사의 입지성에 관한 연구 ▲장양기 = Biorthogonal 웨이브릿 기저를 이용한 영상의 불러 단위 대역 분할 부호화 ▲박기승 = 웨이브릿변환을 이용한 영상 부호화 ▲윤상훈 = 전력용 GaAs MESFET을 이용한 전력증폭기 설계와 제작에 관한 연구 ▲이인형 = C-band 전력용 GaAs MESFET 제작에 관한 연구 ▲주상현 = A study on the design of global codebook for vector quantization using a neural network ▲신관철 = UHF 대역 자동차 점화계통장치의 측정과 통계적 모형 ▲조정우 = 무결성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기 설계 ▲최연우 = VDM 명세서에서 자료흐름도의 변화 ▲유현주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설계 ▲권상민 = 핵 추출방식에 의한 문자 인식 ▲민준식 = 슬롯림으로 연결된 다중 처리기 시스템에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홍성진 = 유관식 글자판 편집 시스템의 구현 ▲정지용 = 화일 중복을 허용하는 전체 화일 캐싱 ▲이창원 = Hyperstability 방법을 이용한 로보트 매니플레이터의 적응제어 ▲박영호 = 유니어 버러시레스 IC모터의 시작 및 특성해석에 관한 연구 ▲윤신용 = 양축식 연구자식 기동형 LDM의 설계 제작 및 구동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철 = 직접 적용 제어 방식을 이용한 로보트 매니플레이터 제어에 관한 연구 ▲전병준 = 불초탄방식을 이용한 SF₆ 가스의 전자수송계수 해석 ▲강상진 = 구름

사면에서 지표형상 및 수리특성이 지표상 흐름에 미치는 영향 ▲문준배 = 비프호호를 해석을 위한 부간극수압 측정용 탐 개발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미희 = 루프메쉬 보강 일반형 슬래브에서의 이음길이에 관한 실험적 연구 ▲노승인 = 기초결함 밀도에 따른 열기소성 분말이 예측된 강인화에 미치는 영향 ▲이재형 = 카본나노의 가열안정성 연구에 관한 연구 ▲장정원 = 물결기름의 산화안정성에 대한 대두 레시틴의 항산화 효과 ▲최은경 = 중국 using a neural network ▲신관철 = UHF 대역 자동차 점화계통장치의 측정과 통계적 모형 ▲조정우 = 무결성을 지원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기 설계 ▲최연우 = VDM 명세서에서 자료흐름도의 변화 ▲유현주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설계 ▲권상민 = 핵 추출방식에 의한 문자 인식 ▲민준식 = 슬롯림으로 연결된 다중 처리기 시스템에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 ▲홍성진 = 유관식 글자판 편집 시스템의 구현 ▲정지용 = 화일 중복을 허용하는 전체 화일 캐싱 ▲이창원 = Hyperstability 방법을 이용한 로보트 매니플레이터의 적응제어 ▲박영호 = 유니어 버러시레스 IC모터의 시작 및 특성해석에 관한 연구 ▲윤신용 = 양축식 연구자식 기동형 LDM의 설계 제작 및 구동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철 = 직접 적용 제어 방식을 이용한 로보트 매니플레이터 제어에 관한 연구 ▲전병준 = 불초탄방식을 이용한 SF₆ 가스의 전자수송계수 해석 ▲강상진 = 구름 (7면으로 이어짐)

등록금 14% 인상안 잠정 합의

총운위 무성한 논의속에 행로 찾기 고심

94학년도 등록금 14% 인상안을 두고 학생회에서도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제26대 총학생회(회장=박현식·전기4)는 등록금고지서 합의 발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금협상의 핵심에 서있다고 볼수 있는 총학생회는 등록금 14%인상안등 합의안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등록금 인상률 14%는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책정 협의회는 지난 14일 까지 4차례의 협상을 통해 △94학년도 등록금은 14%인상 고지하며 신입생에게도 동등인상을 적용한다. △학교는 이미 수납된 신입생 등록금의 차액분을 2학기 등록시

까지 수납한다. △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학생회비는 통합고지한다. △등록증홍의 의지 아래 동의의 제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등록증홍 한마당을 성사시킨다. △등록발전위원회를 건설하고 발족식을 등록증홍 한마당속에서 대중적으로 진행한다. △대학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과 경주의 양 캠퍼스에서 요구한 학생복지안은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와 학생이 공동노력으로 해결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16일에 열렸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법대, 문과대를 비롯한 7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인상률의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점, 협상안들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점등의 협상과정상의 부합함을 들어 14%인상안을 반대했다.

새내기 새배배터 일정으로 협상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며 이날

말까지 협상을 완결짓고 등록금 고지에 들어갔다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어서 이달안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협상안들이 통과가 안될 경우 학교측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대학원 북경대에 불서기증

한 중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불교대학원(원장=오형근·불교학)은 중국 북경대 사회과학원의 한국문화연구소와 조선문화연구소, 한국학 연구센터 및 세계종교 연구소내의 불교연구소에 불서를

지난 15일 기증했다. 이번 기증한 책은 본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전서' 4권과 '불교학보' 2집, 그의 한국불교학자들의 저서 및 불서들이다.

94학년도 1학기 학사보고회 개최

본고사 실시, 대학자체 평가 보고 등

94학년도 1학기 학사보고회가 오늘(23일) 오전 9시30분 동국관(L301)에서 오복원 이사장, 민병천 총장, 각 차실장 및 교수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늘열린 학사보고회에서 기조초정실(실장=정용길·정치외교학)은 서울캠퍼스 대학자체종합평가연구 1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94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학술부와 국제부를 통한 연구교류사업 신설 계획과 학과의 통폐합등을 연구중이라고 밝히고 제3캠퍼스 구성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교무처(처장=정병호·국민윤리학)는 학사보고회에서 95학년도 입학시 서울캠퍼스에 한해 국어는 출제형식의 본고사를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교과과정의 전전적 개편을 위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행사에 21C 교육개혁특별연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는 21C 교육개혁 특별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연구결과를 오는 8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교수총회가 학사보고회가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각 차실에 대한 질의 및 기타 토론 결산보고등을 안건으로 열렸다.

의사 국가고시 98.1% 합격

경주캠퍼스 의과대학(학장=최의한·예방의학)의사국가고시가 지난 1월11일 대구 대륜고에서 치뤄져 본과 4학년 대상인원 53명중 52명이 합격, 98.1%의 합격율을 보였다.

학전무대

안씨는 말한다

○...“안파가 무슨 전가!”

지난 22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물가 장관이 무고한 안파, 마늘에 대해 물가인상의 죄를 뒤집어 씌워 말 못하는 안파의 슬픔이 대탄하더라. 게다가 이를 빌미로 안파, 마늘 수입을 준비하는 민자내는 이후 UR타결까지의 그 당당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에 양파군 회전무대자의 입을 빌어 한마디 “아니 나 때문에 공공요금에 20~30%나 올랐더니 나중엔 나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하잖구만”

문민정부 그후 1년

○...문민정부 1년 결산 콘서트 퍼레이드

재일 이후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나만(국가 각 기관장 뇌물 수수 혐의), 목을 걸고 쌀을 지키겠다-농민목(UR 쌀 개방 사전 밀약 의혹), 물가 인상을 3.7%로 억제-37% (작년 실 바구니 물가 20~30%인상)

“말만 가지고는 이미 신한국을 다 건설했으니 이제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요?”하는 한 학우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

동국의 고아(?)들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다른 곳보다 두 배나 바쁜 일꾼들이 있어, 바로 야간강좌 학생회라고.

알아보니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북한학과, 반도체학과, 전산통계학과와 새기들을 돌보느라 분주했다네.

사실인즉 이들 새내기 학과들은 선배도 없는 데다가 아직까지 학회실도 마련 안된 것은 물론 교수 조교도 확정이 안되었다.

이에 한 새내기 “집도 부모도 없는 우리는 동국의 고아같다”라며 투덜대기도.

술꾼 복학생

○...“기는 사람 멀리지 않고 오는 사람 잡지 않는다” 양반글 학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어느새 이렇게 바뀌고 있다네.

인학식과 아울러 복학생들의 복학신청기간을 맞이 변변찮은 복학기간 및 구비서류 준비 공고 하나 없어 오랜만에 다시찾은 학교가 복학생들께겐 어색하기만 하다고.

심지어 복학기간을 몰라 복학을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

이에 한 학우 “그렇잖아도 학교재정이 모자란 판에 한사람의 복학생이라도 확실히 잡아라 할 것”이라고 일침.

94학년도 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 ▲봉일원(문과대 독어독문학과 전임강사)
 - 79년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
 - 81년 고려대 독어독문학 석사학위 취득
 - 92년 독일 Paderborn대 독어독문학 석사학위 취득
 - 독어학 전공
 - ▲이영민(경상대 경영학과 전임강사)
 - 84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
 - 86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
 - 92년 미 Minnesota대 노사관계학 석사학위 취득
 - 인사관리(노사관계론)전공
 - ▲엄기환(공과대 전자공학과 조교수)
 - 72년 본교 전자공학과 졸
 - 75년 인하대 전자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 86년 본교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 계측제어공학 전공
 - ▲유승룡(공과대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83년 본교 건축공학과 졸
 - 86년 연세대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 93년 미 Florida대 구조학 박사학위 취득
 - 건축구조학 전공
 - ▲유국현(공과대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 83년 본교 이과대 화학과 졸
 - 86년 독일 함부르크대 화학과 졸
 - 89년 독일 함부르크대 화학과 석사학위 취득
 - 94년 독일 함부르크대 화학과 박사학위 취득
 - 기기분석 전공

- ▲임종수(공과대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 81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
 - 91년 미 Rice대 화학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 현 KIST화학 공정연구실 선임 연구원
 - 화학공학(환경)전공
 - ▲이우식(공과대 화학공학과 전임강사)
 - 78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
 - 80년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 88년 Purdue대 화학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 화학공정제어 전공
 - ▲이용영(자연과학대 생화학전임강사)
 - 82년 서강대 생물학과 졸
 - 85년 서울대 미생물학과 석사학위 취득
 - 92년 미 Michigan대 미생물학과 박사학위 취득
 - 분자생물학 전공
 - ▲박종희(상경대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 80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
 - 85년 미 Washington대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졸
 - 88년 미 Washington 대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석사학위 취득
 - 93년 Business Administration 박사학위 취득
 - ▲문일수(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1년 경북대 농화학과 졸
 - 83년 서울대 유전학과 석사학위 취득
 - 91년 캐나다 New Brunswick 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 해부학 전공

- ▲김동훈(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경북대 의학과 졸
 - 89년 경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3년~현 경북대 의학과 박사과정중, 마산과타병원 해부 병리과장
 - ▲김지용(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1년 서울대 의예과 졸
 - 86년 서울대 의학과 졸
 - 9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94년 서울대 예방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예정
 - 예방의학 전공
 - ▲배철성(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5년 영남대 의학과 졸
 - 91년 영남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4년 영남대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 현 대구 직입자 병원 산부인과 과장
 - 산부인과 전공
 - ▲김수성(의과대 의학과 조교수)
 - 80년 전북대 의학과 졸
 - 84년 전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0년 전남대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 93년 현 동국대 포항병원 흉부외과 근무중
 - 흉부외과 전공
 - ▲신현중(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4년 경북대 의학과 졸
 - 87년 경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3년 영남대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 92년 현 동산의료원 흉부외과 연구강사
 - 흉부외과 전공

- ▲김희수(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1년 이화여대 제약학과 졸
 - 89년 미 Massachusetts대 분자 및 세포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 89년 Vassar 대학 생물학과 객원 조교수
 - 미생물학 전공
 - ▲권삼(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경북대 의학과 졸
 - 89년 경북대 내과학 석사학위 취득
 - 91년 현 경북대 내과학 박사과정중,대구성심병원 내과과장
 - 내과전공
 - ▲이근직(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고려대 의학과 졸
 - 87년 고려대부속 해병병원 인턴수료
 - 94년 고려대 부속병원 레지던트 수료
 - 성형외과 전공
 - ▲조희태(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5년 경북대 의학과 졸
 - 91년 경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2년 경북대 병원 인과 전공의 수료
 - 안과 전공
 - ▲윤경철(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경북대 의학과 졸
 - 92년 경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93년 경북대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 안과 전공
 - ▲김영진(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경북대 의학과 졸업
 - 87년 경북대학병원 인턴과정 수료
 - 93년 경북대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
 - 이비인후과 전공

〈6면에서 이어짐〉

미치는 영향 ▲김호연=Cyclosporin A의 간독성에 대한 연구 ▲최길선=인체조직내 PLC-γ1의 분포에 관한 면역조직화학 연구 ▲양전석=인과결 결변에서 PLC-γ1과 PLC-γ2의 표현에 관한 연구 ▲김도현=카토 입력부하 심근비후에서의 nuclear DNA의 변화 ▲박신영=급성기 부부손상환자에서 혈액응고 기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진=각종 호흡기 질환자에서 혈청 β₂-microglobulin 측정치에 대한 연구

〈불교대학원〉

▲류덕상=유식사상을 통한 유루시소의 작용에 관한 연구 ▲인간소외에 대하여 ▲김재욱=불교외에 있어 법의의 기능과 구성-제의식을 중심으로 ▲조영주=동화사 盧隱의 미술사적 고찰 ▲김정자=불교의 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보은사상에 관한 연구 ▲부모 존중을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김덕제=정부출발연구기관의 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선관=다산의 행정개혁사상에 관한 연구 ▲유정규=권위주의적 행정문화의 변이에 관한 연구 ▲김광우=군 사무자동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권혁중=한국의 정치발전과 정당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정수=육군 교육 훈련 관리에 관한

연구 ▲김영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류자열=유통산업개방에 따른 합리적 행정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지창성=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연구=지방세를 중심으로 ▲김승원=지방자치에 따른 관공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길현=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유정섭=지방자치시대의 지방분권 역할과 개선에 관한 연구 ▲조동진=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형우=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안보관계의 고찰-미군의 한국주둔정책을 중심으로 ▲김수길=군 시기제고를 위한 병영 시설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규=한국군 정신교육의 실태와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희=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노재홍=북한의 대서방 외교에 관한 연구-90년 이후의 대미·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환=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고찰 ▲임문택=일진·병자 양란의 환경요인분석과 국방태세에 관한 연구 ▲주우택=한국 병력동원제도에 관한 연구 ▲양종수=중국의 국방현대화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김삼목=국제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재호=일본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참가와 방위력 증강정책에 관한 연구 ▲김병태=주한미군내의 카투사제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성범=북한의 대남심리전 활동에

관한 연구 ▲전석인=북한 경제체제의 특성과 개방화 전망에 관한 연구 ▲이성복=김정일체제 구축에 미치는 군부 영향력에 관한 연구 ▲김병만=국가공안 관리에 관한 연구-공공경찰 방지를 중심으로 ▲이성구=한강유역 수질오염 실태와 방치정책에 관한 연구-행정규제강화를 중심으로 ▲최상식=군 비평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군 4대 다발사고를 중심으로 ▲정병만=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김상수=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비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희규=한국 경제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재=전경의 시기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서울 지방 경찰청 산하 전경을 중심으로 ▲박영철=형법개정방안안에 반영된 보안치분제도의 연구 ▲최진석=사무직 취업모를 위한 보육제도에 관한 연구 ▲남승호=노부부 부양의식과 노후생활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서울거주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송경모=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역할에 관한 연구-지역사회 복지지를 중심으로 ▲김중승=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현숙=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타아육구에 관한 연구-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차동재=중요복지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추순삼=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고령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경영대학원〉

▲이성민=제약업에 있어서의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국내 상장회사의 외국인 투자회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미정=해의 주재원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우리나라 종합무역사상을 중심으로 ▲이규옥=우리나라 직지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연구 ▲한규은=한국 제조업체의 중국 침입시 진출에 관한 고찰 ▲이영규=해상 적하보험의 분쟁사태에 대한 연구-보험사, 해상운송인 및 무역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민병주=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조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유택=기업문화에 관한 연구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부 투자기재 연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희자=계속유통 연구 ▲김금섭=상계·중계·하계지구의 상관관계 ▲이정봉=환경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사회화(지리분야)교육을 중심으로 ▲이수화=조선 후기학교의 교육기능의 일연구 ▲이병숙=고려수신 집권기 사원세력에 대한 고찰-반무신적 세력을 중심으로 ▲황병근=문제해결을 통한 수업-실험을 중심으로 ▲장석두=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의 증진에 관한 연구 ▲신승섭=중학교 수학과에 대한 프로그램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일차학습 단원을 중심으로 ▲정윤교=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윤경숙=고등학교 2학년 농학생과 정상학생의 도덕 판단비교연구 ▲경

DMZ의 토지 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김현중=한국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대학원〉

▲원지연=학교급식제도의 운영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구재우=중학교 교장교사의 교사와의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김광은=사립 국민학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김진희=교사의 기능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이순자=교원승진제도의 적합성 진단에 관한 연구 ▲송중섭=교내 자체 연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희자=계속유통 연구 ▲김금섭=상계·중계·하계지구의 상관관계 ▲이정봉=환경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사회화(지리분야)교육을 중심으로 ▲이수화=조선 후기학교의 교육기능의 일연구 ▲이병숙=고려수신 집권기 사원세력에 대한 고찰-반무신적 세력을 중심으로 ▲황병근=문제해결을 통한 수업-실험을 중심으로 ▲장석두=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의 증진에 관한 연구 ▲신승섭=중학교 수학과에 대한 프로그램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일차학습 단원을 중심으로 ▲정윤교=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및 의식조사연구 ▲윤경숙=고등학교 2학년 농학생과 정상학생의 도덕 판단비교연구 ▲경

연수=관음신앙에서 본 사회 구제론 연구 ▲송병철=미타 정토신앙의 교리적 배경에 대한 연구 ▲서태현=조선후기 八相續講의 핵심부분에 대한 연구 ▲정인자=불교의 교육사상과 아동 미술교육의 정서적 영향 ▲류완하=신라 토우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욱=아프리카 조각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문=50~60년대 미국회화의 회화에 관한 연구-Minimalist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김주호=白雲 盧應麟의 시세계 ▲박천우=창원지구에 있어서 투사거리에 미치는 운동학적 요인연구 ▲이석훈=육상 선수의 스포츠傷害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김영욱=W.Wordworth의 자연의 원형-Tintern Abbey를 중심으로 ▲이용덕=영어특혜문제와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정문우=영어대명사에 대한 통사 및 기능적 접근 ▲김승모=마이크로 스트림 선로형태의 X-band 대역폭과 필터의 설계에 관한 연구 ▲정명진=이동통신 채널의 강세보상을 위한 적응 등화기 성능개선

컴퓨터 용어 약어 전자사전제작 및 구현 ▲한은우=불교유치원 종교교육의 현황과 그개선안안 모색

〈정보산업대학원〉

▲김재호=응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향상을 위한 접근통제 ▲김호정=방송중시자의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조영주=북한의 언론·출판에 관한 연구 ▲김진하=디지털 자사의 위치이동에 의한 경제적 ▲박천우=창원지구에 있어서 투사거리에 미치는 운동학적 요인연구 ▲이석훈=육상 선수의 스포츠傷害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김영욱=W.Wordworth의 자연의 원형-Tintern Abbey를 중심으로 ▲이용덕=영어특혜문제와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정문우=영어대명사에 대한 통사 및 기능적 접근 ▲김승모=마이크로 스트림 선로형태의 X-band 대역폭과 필터의 설계에 관한 연구 ▲정명진=이동통신 채널의 강세보상을 위한 적응 등화기 성능개선

〈지역개발대학원〉

▲김경오=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연구 ▲김하수=장교진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원환=관리자의 지도방법과 직원사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외우=지방정부 행정전산화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 254면)

